

CHAPTER 4. 정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1) 20%대 비중의 정시모집, 여전히 중요하다!

수시모집의 비중이 70%를 넘어 가는 현실에서 수시모집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 비중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려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의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한다는 말을 했지요.

이제는 정시모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비중에 불과한 정시모집, 굳이 준비해야 하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정시모집은 비중이 20%대에 불과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시모집 비율이 70%를 뛰어넘는 상황.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상황 탓에 수능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선 수능 최저 학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일지라도 수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학이 발표한 전형계획상의 수시모집, 정시모집 인원이 최종적으로 수시모집 비중이 줄어들고, 정시모집 비중이 다소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지요. 즉 대학들이 발표하는 전형계획상 수시모집 인원과 정시모집 인원이 대학에서 최종 선발할 때는 변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현재 명목상 비율은 정시모집의 비율이 20%대에 그칠지라도 따지고 보면 정시모집의 비중이 20%대를 훌쩍 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수시 이월, 결코 무시하지 말라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1인당 6번의 지원기회를 갖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A, B, C 대학에 중복 합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학생은 세 개 대학 중 A대학을 택해 최초합격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B, C 대학은 합

격을 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한인원 중에서 충원을 하게 되지요. 대학에 따라 충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만큼을 정시로 이월시켜 정시모집으로 뽑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대학이 수시로 뽑는 인원은 당초 예정 보다 적게 뽑고, 정시로 뽑는 인원은 당초 예정보다 많이 뽑는 일이 발생한 다는 것이지요.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서울대는 234명이 수시모집에서 이월했습니다. 즉, 서울대는 애초에 정시모집으로 729명을 뽑으려 했는데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이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시켜 뽑은 것이지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서울대는 총 963명의 학생을 정시모집으로 뽑았습니다.

연세대는 서울대보다 더 많은 인원을 이월해 선발했습니다. 애초에 정시 모집으로 1003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시 이월인원을 포함시켜 총 1354명을 뽑은 것이지요. 이월인원의 규모만 따지자면 수시모집의 한 전형으로 뽑는 인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결코 이월인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수시모집 당초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시이월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인원은 꾸준히 늘어날 일만 남았으므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 또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듯 정시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 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학생부 수준이나 대학별 고사 준비상황, 모의고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자신이 수시모집에 유리한지, 정시모집에 유리한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정시모집에 유리하다면 전략적으로 정시모집 중심의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요.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내가 수시모집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 대비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시모집, 학생부 성적 신경 쓸 필요 없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결국 수능입니다. 일부 대학에 선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을 100% 또는 90%로 반영하지요.

서울 주요 6개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정시에서 수능을 90% 또는 100%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한양대는 모집군별로 반영 비중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수능의 반영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나군)에선 수능을 90% 비중으로 반영하는데 10%를 반영하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학생부를 10% 정도 반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점수가 워낙 높다보니 학생부 교과성적 등급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지요.



연세대 정시모집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방식(2018학년도)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50	49.75	49.5	49.25	49	48	46	43	38

<표1>은 연세대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급과 9등급의 차이가 12점이 납니다. 1등급과 8등급의 차이가 7점에 불과하군요. 연세대에 정시모집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적어도 학생부 교과 성적 6등급 이하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단 1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학생부는 정시모집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생부 교과성적이 다소 나쁘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성적만 좋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정시모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선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의 정시 반영방식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정시모집, 모집군 및 단위에 따라

지원패턴 달라

수시모집이 모집군 없이 6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시모집은 모집군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뉘어 군별로 1개의 대학씩 총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시모집 지원 방식상의 특징은 여러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세대는 모집군상 '나군'에 있는 대학입니다. 서울대는 '가군'에 있지요. 연세대 상위권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군'의 서울대에도 지원을 합니다. 즉 인문계열의 상위권 학과인 경영학 과와 경제학부, 자연계열의 상위권 학과인 치의예과, 의예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군의 서울대와 중복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에 따라 미등록 충원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문계열에서 불어불문, 사회복지학과 등 합격선이 다소 낮은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군에서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안정권 대학인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에 지원합니다. 가군에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하고, 나군에 지원한 연세대에도 동시에 합격하면, 연세대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등록 충원율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렇듯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과 모집단위의 수준에 따라서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정 지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시모집의 기본 구조는 반드시 이해하고 입시 전략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정시모집을 경험해보지 못한 수험생과 학부모라면 자신이 받은 수능 성적표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별로 서로 다른 성적 반영 방식 △특정 수능 영역에 대한 가중치 여부 △대학 선발 방침 상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순히 배치표나 온라인 정시 지원 서비스에 기대 자신이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수험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정시모집은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배치표는 자신이 어느 성적대에 속하고, 해당 성적으로 어느 범위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면밀한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배치표를 맹신하지 말고, 대학마다 다른 성적 환산 방식, 반영 비율, 반영 과목, 가중치를 파악한 후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별 환산점수'입니다. 정시 지원 시 학생이 받은 수능 성적표상의 표준점수는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들은 영역별로 반영비율을 달리 두고 있고, 특정 영역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받은 표준점수를 대학별 반영 방식에 따라 새로이 환산하는데, 이를 '대학별 환산점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수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국어·영어에서 다소 낮은 성적을 받았다면 수학에 가중치를 두는 대학에 지원해 자신의 대학별 환산점수를 높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학별 환산점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표 상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만으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해버리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케이스에 한해서는 학생부 성적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100% 반영해 선발하지만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교대는 서울교대를 제외하고 정시모집에서도 단계별 사정 방식을 운영합니다. 1단계에서부터 학생부를 반영 하는 경우도 있고,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교대가 학생부 성적을 비중있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교대 지원자들은 정시 지원 시에도 학생부 성적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적대별로 지원전략 수립해야!

정시모집에서 성공하려면 성적대별로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정시모집은 동일한 수준의 대학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므로, 자신의 성적대에 따라 대략적인 지원 전략만 수립해놔도 추후 수능 이후 가채점 성적, 수능 점수 등을 토대로 지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위권은 소신지원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자신의 점수에 맞는 대학을 최대한 정확히 찾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학교별 환산점수를 확인해 소수점까지 계산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할 모집단위가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과보다는 대학 위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경향이 큼니다. '서울 소재 대학 상위권 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의과계열 학과'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원하는 식이지요.

서울 소재 대학은 주로 가군과 나군에 많이 몰려 있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세 번이 아닌 두 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희망 대학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대학 합격가능성을 판단 해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입시 결과와 올해 수험생들의 지원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모의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대학별 환산점수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학과보다는 대학을 우선시하는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학들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보면 대부분 수능 성적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추가모집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나보다 상위권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른 군으로 합격해 많이 빠져나가야만 합격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한 경쟁자들이 다른 모집군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요. 이처럼 상위권 수험생들은 자신의 희망 대학과 비슷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의 합격선까지 고려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시 지원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성적대 학생들은 바로 중위권 학생일 것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 고려 대학의 전형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나군 중 하나의 모집군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이 아니라면, 내가 지원할 모집단위는 어느 모집군에서 선발하는지도 꼼꼼히 파악해야 하지요.

수능 반영방법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일부 중위권 대학의 경우, 학과 별로 수능 반영비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성적을 확인한 뒤, 점수가 잘 나온 영역을 높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 및 학과가 어디인지 분석 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대학에 따라 학생부를 반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영향력도 고려해 최종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위권에선 대학별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점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점수 합은 3~4점 차이가 나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면 1점 차이도 안나는 대학이 있고, 큰 차이가 나는 대학도 있는 식이지요. 단순히 표준점수만을 갖고 차이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지원할 대학 및 학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하는지 확인한 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합시다.

하위권 수험생의 경우, 수능 3개 또는 2개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외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낮다고 낙담하기보다는 학생부까지 고려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는 모의지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지난해 성적과 지원참고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위권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보다 다소 높은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 미달이 생길만한 학과를 찾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원이 미달되는 학과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및 학과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세요.